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맑은 뒤 흐림

제목 :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 일

연니 친구들과 지안 차인, 엄마들과 함께 상암 월드컵 공원에 갔다 거기서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기 위해 미라톤 걷기 대회를 하게 때문이다 어린이 희망워크 대회 티셔츠를 입고 4.2195km를 걸었다. 처음엔 즐거웠는데 점점 가다보면서 다리가 아팠다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밤복했더니 다리가 더 아팠다. 그래서 간식을 먹으면서 걸었다. 중간에 물 마시는 곳이 있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허물을 먹는다고 설명해주셨다. 또 아프리카에는 학교가 많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많고, 그 아이들은 일을 하거나 틀리 받고 시집을 보낸다. 그런 아이들이 볼쌍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걸이만큼 기부가 되어 학교도 지어준, 먹을 음식도 보내고, 깨끗한 물도 보내준다고 했다. 마지막에는 금메달도 주고, 간식도 줬다. 덕분에 엄청 좋았다 오세냐하면 금메달을 받았다 그리고 연필 지우개, 색연필을 받았다.

학년 4반 이름 : 김지연

2013.5.12